

여수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 70% 수준

대기질 실시간 감시·신속한 경보체계 구축 등 효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 등 저감 대책 힘쓰기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의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의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에도 고심하고 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수시는 36 $\mu\text{g}/\text{m}^3$ 로 서울(52 $\mu\text{g}/\text{m}^3$), 경기도(55 $\mu\text{g}/\text{m}^3$) 등에 비해 낮았다.

초미세먼지도 평균 24 $\mu\text{g}/\text{m}^3$ 로 서울(32 $\mu\text{g}/\text{m}^3$), 경기도(36 $\mu\text{g}/\text{m}^3$)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러한 결과를 지형적 요인과 함께 자체적인 미세먼지 줄이기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시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주의보·경보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즉각 문자메시지와 팩스, 전광판 등으로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해 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에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이륜차·천연가스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저녹스 버너) 설치 등 6개 사업에 국·도비, 시비 등 21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와 관련 시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14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공기청

정기 774대를 지난 1월 보급하기도 했다. 또 올해는 승용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1352만~2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기이륜차 구입자에게 대당 230만~250만원을 지원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경보체계를 갖추고 미세먼지 재비산 방지 살수차를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등 배출원인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지난 4일 여수시 관계자들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제해양관광도시 부문 '2018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3년 연속 국제해양관광도시 대상

여수시가 3년 연속 국내 최고의 국제해양관광도시로 인정받았다. 여수시는 지난 4일 '2018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국제해양관광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브랜드 대상은 국내의 산업, 도시, 농·식품, 문화를 대표하는 부문별 최고의 브랜드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최고 브랜드는 소비자 설문 조사와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NCI) 결과, 전문가 최종심사 등을 거쳐 결정됐다. 여수시는 지난 1월 26일부터 12일간 전국 만16세 이상 1만2000명의 소

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76.54점으로 1위에 올랐다. 사전시와 안산시, 목포시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여수밤바다와 남만버스킹, 남만포차, 남만버스 등 남만을 소재로 한 여수만의 콘텐츠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광객의 원도심 집중에 대비해 여수밤바다 야경코스를 옹천과 소호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시민 중심의 관광정책을 통해 최고의 행복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교육경비 지원 170억까지 확대

무상교육·등록금 이자 지원 등 행복한 교육도시 만들기 박차

여수시가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행복한 교육도시 만들기 발을 뺀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100억원 규모의 교육경비 지원을 조례에 근거해 자체 수입의 7%인 17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무상교육과 지역 고교 졸업자 대학 입학금·등록금 이자 지원, 고교 소규모학급 운영 지원, 4차 산업혁명 체험관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무상교육은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계적으로 교육소비제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고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 시 입학금과 등록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도 줄인다. 이와 함께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축소 및 폐교를 막기 위해 고등학교 소규모 학급 운영을 지원한다. 학급축소를 막고 유지되는 학급의 운영비 5000만원 상당을 지방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여수지역 고등학교의 27~30명인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학생들이 더욱 섬세한 교육지도 등을 통해 밀착형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수시는 소규모 학급 운영의 구체적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향후 교육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체험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체험관을 통해 미래사회에 맞는 교육과정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주철현 여수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계획을 밝히고 있다. <여수시 제공>

주철현 여수시장은 "교육의 수요자인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밖 지역사회와 연계해 더 풍요로운 교육의 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폭넓은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

며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의미 있는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일부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2~3%대로 인하

죽림 3%, 여서·문수 2%로 최근 조성 옹천지역 조정중

여수지역 일부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연 5%에서 2~3%대로 인한다. 여수시는 (주)부영주택이 소라면 죽림 지역 부영아파트단지를 비롯해 여서동과 문수동, 옛 여천지역에서 건축된 부영아

파트단지의 임대료 인상률을 낮추는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최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죽림 지역은 3%, 도심권인 여서·문수·여천 지역은 2%로 인상률을 낮추게 된다. 최근 조성된 옹천 지역 부영임대아파트는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주)부영주택은 매년 법적 상한선

인 5%까지 임대료를 인상해 왔고, 타지에 비해 여수 지역 부영아파트의 임대료가 높게 책정돼 시민 불만이 컸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전국 25개 지자체가 참여한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임대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해 11월 옹천부영아파트를 방문한 뒤 12월 부영주택 대표

이사와 면담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조정을 요구했다. 지난 6일에는 임대료 인하가 결정된 죽림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입주민 불편 민원 즉시 해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는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앞두고 있는 옹천지역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하를 위해서도 노력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하로 많은 시민이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건설노조, 관공공사 지역민 우선 고용 협약

지역 건설기계 사용 권장도

여수시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시가 발주한 관공공사현장의 지역민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사용 권장을 약속했다. 9일 여수시와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여수시청에서 주철현 시장, 광주전남건설지부 남상배 지부장,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정양욱 지부장이 근로자 권리 보호와 안전한 건설현장, 고용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성 권장 ▲건설기계 대역대급 지급보 증제도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도 담았다. 여수시는 건설근로자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학교'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고 건설노동자들도 안전한 건설현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남상배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법과 제도화된 내용이 건설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여수시와 건설노동자들이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정책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 우선 고용, 지역 업체 우선 이용, 지역 물품 구매라는 민선 6기 시정철학이 바탕이다"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지역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안전한 건설현장 문화조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불법 하도급 단속, 표준 근로계약서-건설기계임대자 표준계약서 작

약서-건설기계임대자 표준계약서 작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